

# 국 어

해설위원: 정 채 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평]

2018 국가직 국어 시험은 예년에 비해 독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비문학과 문학의 독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읽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 시험이었다.

영역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문법편’은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을 포함하여, 6문제가 출제되었고, ‘어휘편’은 한자어의 쓰임이 2문제 출제되었다. 고유어와 속담은 출제되지 않았다. ‘독해편’은 ‘비문학 독해’ 7문제, ‘문학 독해’ 5문제가 출제되었다. ‘문법편’에서 중세 국어 문법의 난도가 높아진 것, ‘독해편’에서 지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독해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가 많아진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 정답 ②

#### [정답 풀이]

‘반구대’는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에 해당하므로 불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반구대’의 음운상 경계가 없음으로 인해 [Ban-gudea/Bang-udae]로 발음이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Ban-gudae’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의 ‘Ban-gudae’는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독도: Dok-do(x) ⇨ Dokdo(○): ‘독도의 표기는 ‘Dokdo’가 바르다. ‘독도’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불임표(-) 없이 붙여 쓴다.”의 규정에 따라 불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또 제1항 4. ‘불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의 규정에 따라 [독도]로 소리 나지만 [독도]의 발음을 반영하여 ‘Dokdo’로 적어야 한다.
- ③ 독립문: Dok-rip-mun(x) ⇨ Dongnimmun(○): ‘독립문의 표기는 ‘Dongnimmun’이 바르다. ‘독립문의 표준 발음은 [동님문]인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불임표(-) 없이 붙여 쓴다.”의 규정에 따라 이를 표기에 반영할 때는 불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 ④ ‘인왕리’의 표기는 ‘Inwang-ri’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불임표(-)를 넣는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nwang-ri’의 표기는 바르지만 불임표를 쓴 이유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 구역 단위이기 때문으로,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다.

###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해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

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는 제약이 있었다.
-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 정답 ③

#### [정답 풀이]

이 글의 화제는 ‘언간의 특징’이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간이 한문 간찰과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면서 ‘언간의 특징’으로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임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언간’ 사용의 제약은 1문단에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언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일 뿐 글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이 될 수 없다.
- ② 2문단에서 ‘언간’이 ‘내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정보일 뿐 글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이 될 수 없다.
- ④ 1문단에서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2문단에서 이 때문에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뒷부분의 논지를 약화시키는 정보가 되므로 이를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문 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 정답 ③

#### [정답 풀이]

(다) ‘멈추면서’의 어미 ‘-면서’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어미 ‘-면서’가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를 고쳐 쓸 때 어미 ‘-면서’ 대신에 어미 ‘-고’를 써야 하는 이유는 어미 ‘-면서’가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멈추다’와 ‘달리다’가 동시에 겹쳐 있을 수 없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 ‘-고’를 써서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로 고쳐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오답 풀이]

- ① 보조사 ‘은’은 문장 속에서 ‘대조, 화제, 강조’ 등의 뜻을 나타낸다. (가)에 쓰인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 앞 문장에서 ‘수학 성적은’ 좋다고 한 후, 이어지는 문장에서 ‘국어 성적도’ 좋다고 하였는데, 이때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의 의미로 인해 뒤의 문장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이 모두 좋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쓰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② 직접 인용문에는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문에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쓴다. “난 학교에 안 가겠다.”라는 문장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직접 인용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쓴다는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다.
- ④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라는 문장에서 ‘연설’은 ‘자격’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조사 ‘로써’를 ‘로써’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④의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다.





㉔ 결재 자금/어음의 결제.

- 결재(決裁)(결단할 결, 마를 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㉕ 결재 서류/결재가 나다/결재를 받다/결재를 올린다.

④ 제고(提高)(×) ⇨ 재고(再考)(○):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再考) 바랍니다.

• 제고(提高)(끌 제, 높을 고): 쳐들어 높임.

㉖ 생산성의 제고/능률의 제고/이미지 제고

• 재고(再考)(가듬 재, 생각할 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㉗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므로 재고의 여지도 없다.

문10. ㉑ ~ ㉗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㉑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㉒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㉓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㉔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을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㉑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㉒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㉓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㉔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정답 ㉔

[정답 풀이]

㉒ ‘애매어의 오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다.’와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게 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의 부패는 전자의 의미로,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의 부패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㉓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과 ‘의식이 타락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데도 이 둘을 혼동하여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여 하나의 문장에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문의 ㉑ ‘우연의 오류’는 법칙이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적용할 수 없는 우연적인 상황, 즉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적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해도 된다.” 따위가 있다. 그런데 ①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은 연역적 추론의 하나인 ‘정언 삼단 논법’에 해당한다. 정언 삼단 논법은 전체가 선택적이거나 가정적이지 아닌, 단정적으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으로, 세 개의 정언 명제로 구성된다. 삼단 논법의 구성은 “[대전제] 모든 사람은 (p) 죽는다(q). ⇨ [소전제] 소크라테스는(r) 사람이다(p). ⇨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r) 죽는다(q).”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문의 ㉓ ‘결합의 오류’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가진다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그런데 ③의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라는 예는 전체의 속성을 부분도 가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분해의 오류(분할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㉔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문의 ㉔ ‘분해의 오류’는 전체의 속성을 부분도 가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그런데 ④의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라는 예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가진다고 단정하는 데서 생기는 ‘결합의 오류(합성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㉔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문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정답 ㉔

[정답 풀이]

제시문에서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와 ‘건축가가 지은 집’은 ‘본래의 재료가 가진 모습과 달라진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들고 있다. 이는 ‘유추’의 방식에 해당하는데, ‘유추’는 생소한 개념이나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친숙하고 단순한 개념이나 주제와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유개념에 속하면서 유사성을 지닌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와 다르다. ㉔에서 ‘인생도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유추’의 방식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인상주의자들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공통점이 있음은 ‘비교’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인상주의자들’은 동일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므로, 이는 ‘유추’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 비교, 유추

공통점 둘 이상의 사물의 비슷한 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점 비교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대상의 공통점을 견주어 보나, 유추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범주의 사물을 통해 주어진 대상을 추리한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 ‘인물, 배경, 사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인 ‘분석’에 해당한다. ‘분석’은 어떤 대상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고 쪼개어 그 대상의 특성을 낱말이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이다.

- 분류, 구분, 분석

분류	종개념을 유개념으로 묶는 방법 ㉔ 침엽수와 활엽수는 나무의 종류이다.
구분	유개념을 종개념으로 나누는 방법 ㉔ 나무는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눌 수 있다.
분석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㉔ 나무는 잎, 줄기, 뿌리로 나눌 수 있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사람을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시’에 해당한다. ‘예시’는 세부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전개 방법이다.

문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수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은 세잔, 고흐, 고갱의 입장에서 본 인상주의의 문제점을 차례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색했던 세잔의 입체주의, 고흐의 표현주의, 고갱의 프리미티비즘이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음을 서술한 글이다. 제시문의 다섯 번째 문장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를 통해 고갱이 예술에서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원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는 ③은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문의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제시문의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제시문의 후반부에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잔의 입체주의, 고흐의 표현주의, 고갱의 프리미티비즘이라고 나와 있다.

문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제3장의(×) ⇒ 제3장의(○)/제3장의(○):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접두사는 뒷말에 붙여 쓰는 것이 바르므로 ‘제3’처럼 모든 음절을 붙여 써야 한다. ‘장(章)’은 글의 내용을 구분한 것을 세는 단위이므로 ‘제3장’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원칙). 다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에는 ‘제3장’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허용). ‘의’는 조사이므로 ‘제3장의/제3장의’처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좋은√결(○): ‘갈’은 ‘갓’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인 의존 명사 ‘가’와 목적격 조사 ‘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좋은’과 ‘걸’을 띄어 쓴 것은 바르다.
- ③ 진행한√지(○): ‘자’가 의존 명사일 때는 앞말과 띄어 쓰고, 어미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문장에서의 ‘자’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앞말과 띄어 쓴 것은 바르다.
- ④ 10년√차에(○): ‘차(次)’가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러’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결혼 10년 차에’처럼 앞말과 띄어 쓴 것은 바르다.

문14.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깍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깍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깍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 ④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깍는’의 발음은 [깡는]이다. ‘깍는’을 [깡는]으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깡는]을 [깡는]으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비음화’의 적용을 받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② ‘깍아’의 발음은 [까까]이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기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연음한 것이다. ‘탈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③ ‘깍고’의 발음은 [깍꼬]이다. ‘깍고’를 [깍꼬]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깍꼬]를 [깍꼬]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경음화의 적용을 받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한편 ‘도치’는 한 단어나 어군(語群)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배꼽<빅>스곱<빅>뱃똥’ 따위를 예로 들 수 있다.
- ④ ‘깍지’의 발음은 [깍찌]이다. ‘깍지’를 [깍찌]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깍찌]를 [깍찌]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경음화의 적용을 받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문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쳐나게 넘어서려 할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3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포스트휴먼 개념을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포스트휴먼은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신체를 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의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를 통해 미래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를 통해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는 다양한 것이라는 추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의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를 통해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라는 추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크다/작다’는 두 단어 사이에 정도나 등급이 있어서 대립되는 정도(등급) 반의어에 해당한다. 두 단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이 방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고 하여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여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출발/도착’은 A의 부정이 반드시 B가 되지 않고, B의 부정이 반드시 A가 되지 않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출발’의 반대가 반드시 ‘도착’이 되는 것이 아니며, ‘도착’의 반대가 반드시 ‘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출발’도 아니고 ‘도착’도 아닌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②의 설명은 옳다.
- ③ ‘참/거짓’은 A의 부정이 B가 되고 B의 부정이 A가 되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하여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을 부정하면 자연히 ‘거짓’만 남게 되므로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④ ‘넓다/좁다’는 두 단어 사이에 정도나 등급이 있어서 대립되는 정도(등급) 반의어에 해당한다. ‘넓다’의 의미가 ‘좁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썽꾼 ㉠ 술복리 하덕 天命을 疑心하실씩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브르리 ㉢ 하덕 天命을 모르실씩 꾸므로 ㉣ 알외시니  
 (말썽을 아뢰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덕’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알외시니’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알리시니’이다. ㉣은 ‘알외다’의 어근 ‘알-’에 사

동 접미사 ‘-오-, ‘-아-, 높임 선어말어미 ‘-시-, 반말(어미를 생략한 형태)체의 종결 어미 ‘-니’가 차례로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외-’가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술복리’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아뢰 사람이’이므로 ㉠의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 뒤에 오는 주격 조사는 생략되었다.
- ② ‘뵈아시니’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재촉하시니’이다. ㉡은 ‘뵈아다’의 어근 ‘뵈아-’에 높임 선어말어미 ‘-시-, 반말(어미를 생략한 형태)체의 종결어미 ‘-니’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아시-’가 아니라 ‘-시-’이다.
- ③ ‘하덕’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많지만’이다. ㉢의 ‘-덕’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어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①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③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④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1문단의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를 통해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월병은 중국에서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으므로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한국에서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의미 있는 음식이라고 하였을 뿐,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 ④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가 크게 발전한 것이 먼저이고 이 때문에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된 진술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기쯤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노고.’ 하였다. 이윽고 한 종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다.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종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 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문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정답 풀이]

㉠: 막대 던지는 소리와 함께 ‘호승’이 등장한다. ‘호승’은 ‘양소유(성진)’의 스승인 ‘육관대사’이다. ‘호승’의 등장으로 사건이 바뀌며, 꿈(인간계)에서 현실 세계(신선계)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지막 사건에 해당한다.

㉡: 토번을 정벌할 때 ‘호승’을 보았는데, 양소유는 꿈속에서 잠깐 본 화상을 기억해내고 호승의 정체를 꿈속에서 본 화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 꿈속의 일은 상세히 기억하면서, 십 년 동안 현실 세계(신선계)에서 가르치던 스승을 몰라본다는 것을 통해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양소유가 꿈으로 환생하기 전 현실 세계(신선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던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에 해당한다.

㉡: 꿈속(인간계)의 열대여섯 살 때의 일이므로 이 부분은 토번을 정벌하기 이전의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③ ‘㉡→㉢→㉠’이다.

문20.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과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를 통해 아직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라고 한 이후의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승상’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능과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인지의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 [더 알아보기]

1. ‘구운몽’의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의 제자들 중 성진(性眞)이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육관대사는 성진을 용궁으로 심부름 보낸다. 용궁에 간 성진은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八仙女)와 다리 위에서 만나 서로 희롱한다. 인간 세상의 부귀에 갈등하던 성진은 불법의 계율을 어긴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 세상에 양소유(楊少遊)로 환생하게 된다. 양소유는 조정에서 나아가, 하북의 삼진과 토번을 정벌하고 승상이 되어 위국궁에 봉해지고, 팔선녀의 환생인 여성들을 2차와 6첩으로 맞이하여 부귀영화를 누리 후 조정에서 물러난다. 양소유는 산에 올라 주변 풍광을 내려다보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가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하고자 결심하는데, 이때 꿈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깬 성진은 인간 세상에 환생했던 팔선녀와 함께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

2. ‘구운몽’에 나타난 유불선 사상

‘구운몽’은 불교 사상이 작품 전반의 배경을 이룬다. 성진의 신분이 승려라는 것과 성진과 팔선녀가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불도에 정진한다는 것, 불교의 공(空) 사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유교 사상의 경우 인간계(꿈)에서의 양소유가 입신양명하고 부귀공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유교 양반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교 사상은 선녀와 용왕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